

2018년 12월 16일 “복음의 여정(10) 잃은 것을 찾는 길”(눅 15:8-10)

사람은 내면에 소중한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에 가치관과 안목이 변질되고 따라서 삶이 변질됩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잃은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는지를 살피겠습니다.

[1] 눅 15 장 “잃은 것을 찾는 비유들”

- (1) 3-7 절: 잃은 양을 찾는 이야기. 목자와 댕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양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 (2) 8-10 절: 은전을 잃은 여인 이야기(찾고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눔)
- (3)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으시는 아버지: 24 절과 32 절

예수께서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은 하늘의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서 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다면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란 삶의 활력입니다. 복음의 여정은 잃은 것을 찾음으로 생명의 활력을 얻는 길입니다.

[2] 잃은 드라크마

드라크마 한 개의 의미: 열 개의 은전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한 개를 잃으니 열 개가 모여야 이를 수 있는 온전성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은전은 없어서는 안 될 중심적 가치를 지닙니다. 본 비유는 하나가 없으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요리 소스에 간장, 고추장, 설탕, 마늘이 필수인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는 제 맛이 나지 않겠죠. 온전한 요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소중한 하나가 결핍될 때 삶은 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원리가 앞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과 그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요소들(사랑, 오래 참음...)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그와 같습니다. 은전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삶의 중심과 삶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자기 눈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냅니다. 이와 같이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선 필요한 것과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필요한 것은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은 내가 볼 수 없던 곳을 보게 합니다. 이 등불의 상징은 영혼의 눈을 열게 해주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감당해야 할 것은 집을 쓸어내는 일입니다. 가구도 옮기고 먼지/지저분한 것을 쓸어내야 합니다. 먼지는 삶에서 부주의하고 산만하고 불필요한 활동들을 상징합니다. 뻑뻑한 계획을 세우고 쉽없이 돌아가는 분주함과 조급함은 내 삶을 먼지로 덮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불쾌감, 짜증, 비관 등과 같은 부정적 느낌으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가 거두어지고 은전이 발견될 때, 허전함으로부터 가득 차는 느낌, 깨짐과 불균형으로부터 안정과 조화를 이루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자신으로 피어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이 되어가는 길

그런데 잃은 은전을 찾지 못한 인간은 아름답게 피어나는 방식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외모와 말과 적응력 있는 태도 변화와 조정의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고쳐서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사람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잃은 중심적 가치를 찾고, 진리의 길에 대한 확신으로 삶을 걸어가는 길에서 기쁨을 얻어야 '나의 나 됨'을 이룹니다. 그러면 삶의 잃어버린 중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먼저 잃은 것을 찾는 방법은 말씀 묵상/기도를 통한 자기 성찰, 하나님에 대한 열린 자세를 다듬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길은,

삶을 주요 서너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i. 관계적 측면: 하나님과, 가족과, 교우, 직장 동료들과...

관계의 굴곡 속에서 무엇 때문에 탈진, 비난, 자기 비하, 싸움과 분노, 도피, 얼어붙음 등이 일어나는지... 묵상을 통해 등불이 필요합니다.

ii. 일의 측면: 직장, 가정, 교회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잃은 것입니다.

iii. 나를 돌보아야 하는 측면: 수면, 섭식, self-care(renewal 을 위한)

내 삶에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묵상과 성찰을 통해 주님의 등불로 비춰 달라고 간구해야 하고, 쓸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묵상 훈련과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잃은 것을 찾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합니다(10 절).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하나가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맺음>

사람이 잃은 것은 은전 하나로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추상적/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찾을 때, 내 삶은 기쁨으로 채워지는 여정으로 인도됩니다. 잃어버린 삶의 중심과 확신을 주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축복은 더욱 부요해 질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삶의 주요 측면(관계, 일, 나)에서 성찰해 볼 때, 내 삶에서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2. 잃은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등불과 집을 쓸어내는 일에 관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잃은 것을 찾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보세요.